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 Vol.60

목 차

2018. 03. 26. 마케팅지원팀

구 분	제 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탄소년단 제이홉, 한국 솔로가수로서 미국 빌보드 최고 기록경신- 외신, 빅뱅의 군 입대 집중 조명...“K-POP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북미서 히어로 영화 사전 예매량 최고 경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회) 중앙선전부, 조직개편으로 영화 및 신문출판 분야 관리- 웨원 그룹(阅文集团), 2017년 순이익 5억 5,000만 위안- 쇼트클립의 인기 급증, 2017년 시장규모 57억 3,000만 위안
중국 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 세계 800여개 업체가 선택한 제22회 홍콩 국제 FILM & TV 마켓- 개인영화관 경영의 규제 체계화, 업계 성장에 가이드라인 제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내각부, 인터넷 사업자 「TV 사업」에 진출 검토- 해외 동시 전송도 더빙 시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영어 더빙
유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의 SVOD 서비스 사용률이 타 국가에 비해 저조- 동유럽의 유료 디지털 TV 사용자 수 2023년까지 27% 상승 예정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니 패션브랜드 <까미> 및 <바디꼬>, 패션코드 2018 F/W 참가- 2018년 다수 K-Pop 아이돌 그룹, 인도네시아 팬들 찾아온다

미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 비즈니스센터

□ 방탄소년단 제이홉, 한국 솔로가수로서 미국 빌보드 최고 기록경신

- 13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의 제이홉(J-Hope)의 첫 솔로 믹스테이프 ‘Hope World’가 빌보드 200차트에서 28위에 이름을 올림
- 이는 지난주 63위보다 25순위가 상승한 순위이자 한국 솔로 가수로서 최초 2주 연속으로 차트에 이름을 올린 기록으로, 한국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
- 또한, 제이홉은 ‘월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인디펜던트 앨범’ 차트에서 3위, ‘디지털 앨범’ 차트에서 4위를, ‘톱 앨범 판매’ 차트에서 17등 중요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 번 증명함
- 제이홉은 지난 2일 타이틀 곡 ‘Daydream(백일몽)’을 포함하여 총 7개의 트랙으로 구성된 첫 솔로 믹스테이프 ‘Hope World’를 공개함
- 한편, 이 날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한 방탄소년단의 <Love Yourself: Her>는 빌보드 200차트에서 115위를 기록함

□ 외신, 빅뱅의 군 입대 집중 조명, "K-POP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 13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는 빅뱅의 신곡 <꽃길>을 군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염두에 둔 팬들에게 당분간 건네는 마지막 인사라고 소개함
- 이어, “빅뱅은 지난 2007년 이후 K-POP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그룹과 솔로 활동을 통하여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남다른 발자취를 남겼다.”고 호평함
- 시사 주간지 TIME 및 영국 공영 BBC 방송 역시 빅뱅 멤버들의 입대 소식을 크게 다루었는데, 특히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지드래곤에게 쏟아지는 위문편지 때문에 부대 업무가 마비된 상태를 집중 조명하기도 함
- 빅뱅은 13일(한국시간)에 신곡 <꽃길>을 발표해 음원 발표 직후 8개 실시간 차트 1위를 달성한 데 이어 해외 iTunes 28개국 앨범차트 1위까지 차지하는 영광을 안음
- 한편, 빅뱅 멤버들은 현재 5명중 4명이 군복무중이며, 막내인 승리도 올해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소화하고 군 입대를 하여 빅뱅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혀 <꽃길> 이후의 신곡은 다섯 명 모두가 군복무를 마친 후에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북미서 히어로 영화 사전 예매량 최고 경신

- 16일(현지시간) 헐리우드 리포터는 마블사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북미에서 4월 개봉을 앞두고 역대 슈퍼 히어로 영화사상 가장 높은 사전 예매량을 경신했다고 전함
- 종전 마블 영화 최고 예매량을 기록했던 <블랙 팬서>, 슈퍼 히어로 장르 최고 예매량을 기록한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을 모두 제치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슈퍼 히어로 장르 최고 사전 예매량을 기록한 영화가 되었다고 보도함
- <블랙 팬서>보다 높은 예매량은 물론 2018년 전 세계 최고의 기대작으로 일찌감치 손꼽혀 온 <어벤져스:인피니티 워>의 압도적인 사전 예매량 기록과 함께, 박스오피스 기록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어벤져스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는 10주년을 맞이한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으로 완전체를 이룬 어벤져스와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린 이야기 북미에서는 오는 4월 27일, 한국에서는 4월 개봉 예정
- 높은 사전 예매량과 기대에 힘입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역대 북미 슈퍼 히어로 장르 흥행 1위인 2012년도의 <어벤져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됨

중국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 비즈니스센터

정 책	<p>[양회] 중앙선전부, 조직개편으로 영화 및 신문출판 분야 관리</p>
	<p>20일,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공개됨. 이 내용에 따르면 향후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가 영화와 신문출판 분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됨.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던 영화 및 신문출판 분야의 관리 업무를 중앙선전부가 맡게 되면서, 신문출판 분야에서는 관리 정책 제정, 신문출판 행정사무 관리, 신문출판사업, 산업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총괄기획, 저작권 관리, 출판물 수입 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영화관련 분야에서는 영화 행정사무 관리, 영화 제작, 배급 및 상영 업무 지도 감독, 영화 내용에 대한 심사 등을 주요업무로 맡게 되었음.</p>
기 업	<p>웨이원 그룹(阅文集团), 2017년 순이익 5억 5,000만 위안</p>
	<p>19일, 웨원 그룹(阅文集团)이 상장한 후 발표한 첫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웨원 그룹의 2017년 매출은 약 41억 위안(약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2%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은 5억 5,000만 위안(약 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전년 대비 1416% 증가하였음. 이 중 온라인 서적의 수입은 34억 위안(약 5,800억 원)으로 2017년 총 매출의 83%를 차지함. 또, 판권 운영 업무 수입은 3억 6,000만 위안(약 610억 원)임. 웨원 그룹은 작년 말일 기준 총 690만 명의 작가와 1,010만 편의 문학 작품을 보유하고 있음.</p>
미 디 어	<p>쇼트클립의 인기 급증, 2017년 시장규모 57억 3,000만 위안</p>
	<p>최근 쇼트클립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음. 2017년에 이미 100개가 넘는 쇼트클립 플랫폼이 생겼으며, 쇼트클립 APP 이용자수는 4억 명을 돌파함.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리서치(iResearch)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 쇼트 클립 시장 규모는 57억 3,000만 위안(약 9,700억 원)에 달하며, 이중에서도 쇼트클립 APP인 TIK TOK(抖音)이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오늘 더우했어?(今天你抖了吗?)’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을 정도로, 하루 재생 수는 최고 10억 회를 초과하기도 함.</p>

중국 심천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 비즈니스센터

□ 전 세계 800여개 업체가 선택한 제22회 홍콩 국제 FILM & TV 마켓

-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홍콩 컨벤션 센터(HKCEC)에서 열리는 제22회 홍콩 국제 FILM & TV 마켓의 막이 오름.
- 홍콩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문화 교류 허브로써, 제15회 홍콩 국제 FILM & TV 마켓은 필름, TV 프로그램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의 배급 및 제작자들이 주목하는 국제 행사임.
- 본 마켓은 영화와 TV 콘텐츠 마켓이 동시에 열리는 특성으로 인해,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모두 구매하고자하는 아시아권 중소 배급사, OTT 운영사업자들에게 각광받는 마켓임.
- 올해 행사에는 약 800여개 업체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약 8,000명 이상의 저명한 프로듀서, 투자자 등 업계 대표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중국 내륙 업체들의 참여 수는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북경·상해·북경·광둥·호남 등지의 참여 업체가 처음으로 파빌리온 전시관을 세우며, 중국 내륙 드라마의 세계화를 도모함.
- 4일 간, 각 국의 제작프로듀서들이 참가하는 패널 토론, 컨설팅, 포럼 등이 진행될 것이며, 현장에서는 300회 이상의 시사회가 열릴 예정임.



<사진출처 : 네티즈(网易) 신문>

□ 개인영화관 경영의 규제 체계화, 업계 성장에 가이드라인 제시

-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개인영화관, 개인영화관체인 관리규정(点播影院 `点播院线管理规定)>을 발표하였으며, 오는 3월 30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임.
- 본 규정의 발표를 통해, 개인영화관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에 있어 가장 큰 난제였던 운영자격, 저작권 등 문제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잣대가 마련됨.
- 운영자격의 측면에서는, 개인영화관체인에서 배급하거나 개인영화관에서

방영되는 영화는 영화 상영 허가를 받아야하며, 개인영화관의 영화상영경 영허가증 및 개인영화관체인의 배급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제한함.

- 저작권 측면에서는, 개인영화관체인은 개인영화관에 영화 제공을 담당하며, 개인영화관은 소속된 개인영화관체인 배급 범위 외의 영화를 상영할 수 없음. 또한 개인영화관체인은 영화 저작권 라이선스 취득 상황을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 공시 시스템에 게시할 의무가 있음.
- 무질서한 가격책정 시스템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개인영화관 가격책정 시스템은 공무원 영화 담당 부서 규정의 기술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 향후 개인영화관은 전국 개인영화관 경영관리 정보 시스템 상에 영화 매출 수입 통계 등 경영데이터를 게시해야함.
- 또한,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는 동시에 개인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배급이 가능함.

일본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비즈니스센터

□ 일본 내각부, 인터넷 사업자 「TV 사업」에 진출 검토

- 2018년 3월 16일, 아베 총리는 방송 사업의 재검토 방침을 밝힘. 인터넷 등의 통신 업무와 TV·라디오 방송국 등의 방송 업무의 벽을 허물고 인터넷 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
- 규제 완화를 통해 쌍방의 벽을 허무는 것이 방송의 질과 신뢰성 및 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저하될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됨
-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추진회의 (의장 : 오타 히로코(大田弘子)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가 정리한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음
- 검토 중인 주요 내용은 <1> 방송의 정치적 공정성 등을 요구하는 규제의 철폐, <2>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과 방송 시설 등의 하드웨어 사업의 분리, <3> NHK의 방송과 인터넷의 「동시 전송」의 본격화임
- 앞으로의 목표는 「다양한 콘텐츠 (정보 내용) 제작 사업자가 경쟁하면서 고품질의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창조」라고 밝힘

□ 해외 동시 전송도 더빙 시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영어 더빙

- 지난 5년간 일본 애니메이션의 해외 동시 전송 서비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애니메이션의 해외 인기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옴
- 북미 전개의 핵심은 일본 애니메이션 팬이 이용하는 전송 서비스임. 미국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사업의 펼치고 있는 퍼니메이션(FUNimation)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의 TV 애니메이션 시즌3의 시작 즈음, 현지 성우의 영어 더빙 버전을 일본과 동시에 전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힘. 시즌 1, 2도 일본과 동시 전송했지만 모두 자막 버전으로 더빙 버전은 2주 후에 서비스함.
- 최근 해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인기가 확대되면서 해외와의 동시 전송이 큰 역할을 함. 하지만 동시 전송 서비스의 대부분은 다국어 자막을 붙인 자막 버전임
- 더빙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일본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의 첫 방송과 동시 진행해야하는 상황에서 더빙 제작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어려웠음. 해외의 일본 애니메이션 팬은 더빙보다 자막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프트 일본 애니메이션 팬과, 일본 애니메이션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작품을 즐기는 시청자는 더빙 버전에 친숙함
- 현재까지 자막 동시 전송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착한 것과 같이, 더빙 버전의 동시 전송 서비스도 성공할 것인지 2018년 해외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임

유럽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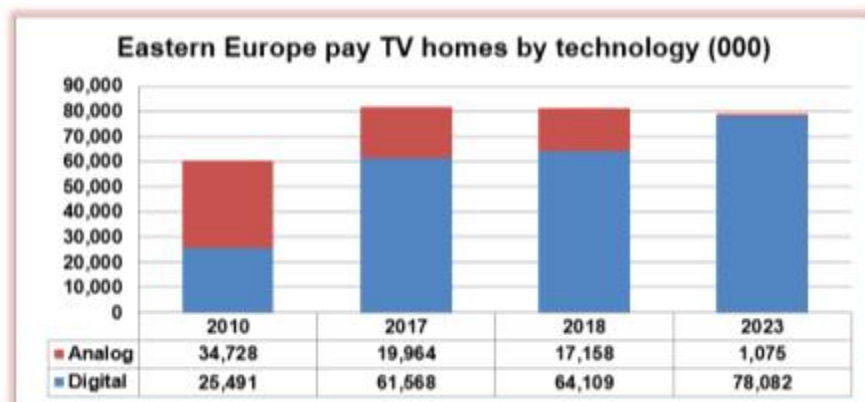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유럽 비즈니스센터

□ 프랑스의 SVOD 서비스 사용률이 타 국가에 비해 저조

- 온라인 매체 <TBI Vision>이 보도한 영국의 리서치 업체 <Ampere A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영국,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독일, 이태리, 폴란드, 네덜란드 등 유럽 14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유료 TV 매출을 기록했지만 Netflix 및 Amazon Prime 같은 뉴미디어 서비스 사용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임
- 프랑스는 SVOD보다 유료 TV를 선호하는 시청자들의 수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랑스 시청자들 중 유료 TV와 SVOD 서비스를 함께 사용하는 시청자들의 수도 32%에 그쳐 설문조사에 참여한 14개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 SVOD 서비스만을 사용하는 프랑스 시청자 비중은 3.1%로 미국의 14.3%와 영국의 14.4%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18세와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SVOD를 사용하는 인구는 31%로 이 또한 스페인 67%, 독일 78%, 영국 81%, 미국 86%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 동유럽의 유료 디지털 TV 사용자 수 2023년까지 27% 상승 예정

- 온라인 미디어 매체 <Digital TV Europe>에 따르면, 동유럽의 유료 디지털 TV 사용자수가 2017년도의 6,157만 명에서 2023년에는 27% 상승한 7,808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그 중 50% 정도는 러시아 사용자 일 것으로 보고 있음
- 하지만 러시아를 포함한 동유럽 10개국에서 아날로그 시그널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유료 TV 사용자들은, 2017년도 1,996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108만 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유료 TV 시청자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Source: Digital TV Research Ltd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8. 03. 26(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인니 패션브랜드 <까미> 및 <바띠끄>, 패션코드 2018 F/W 참가

- 2018년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서울 성수동 S 팩토리에서 패션코드 2018 F/W이 개최됨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 인도네시아 패션브랜드인 <바띠끄(Bateeq)>, <까미(KAMI)>가 참가하여 인도네시아 전통문양을 기반으로 한 실용 패션 및 무슬림 패션 등을 선보임
- <바띠끄(Bateeq)>는 2013년 디자이너 미셸 조크로사뿌트로(Michelle Tjokrosaputri)가 설립한 현지 브랜드로, 주로 인도네시아 전통문양(바띠)을 모티브한 작품을 선보이며 인도네시아 전역 80여개 매장을 두고 있음
- <까미(KAMI)>는 2009년 이스파빠아나 칸다리니(Istafiana Candarini), 나디아 까리나(Nadya Karina), 아빠나 칸다리니(Afina Candarini) 등 디자이너 3명이 설립한 현지 브랜드로, 무슬림 여성을 위한 디자인이 예쁘면서도 실용적이고 편한 옷을 제작함
- 이번 패션쇼에서 <바띠끄(Bateeq)>는 인도네시아 전통인형극인 와양(Wayang)을 모티브로 한 여성복 11개 및 남성복 4개 등 총 15개 바띠룩을 선보인 반면, <까미(KAMI)>는 <게으른 일요일 아침(The Lazy Sunday Morning)> 컨셉으로 무채색 계열의 총 15개 무슬림 홈웨어 룩을 선보임
- 한편, 패션쇼 외에도 100여명의 한국 바이어 뿐 만 아니라 50여명의 해외 바이어 등이 참가한 가운데 비즈매칭 상담회 등이 개최됨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2018년 다수 K-Pop 아이돌 그룹, 인도네시아 팬들 찾아온다

-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K-Pop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8년 1월 21일 개최된 인기 아이돌 <워너원>의 팬미팅을 시작으로, <JBJ>, <KARD>, <14U>, <뉴이스트>, <GOT7>, <여자친구> 등의 콘서트가 개최될 예정이다. 그 일정은 다음과 같음

번호	아티스트명	행사일	장소	비고
1	JBJ	2018. 4. 7.	더 카사블랑카 홀 (The Kasablanka Hall)	티켓가격 : 950,000루피아 (76,000원)~2,750,000루피아 (220,000원)
2	KARD	2018. 4. 14.	더 카사블랑카 홀 (The Kasablanka Hall)	티켓가격 : 750,000루피아 (60,000원)~2,750,000루피아 (220,000원)
3	14U	2018. 5. 12	꾸닝안시티 홀 (Kuningan City Hall)	티켓가격 : 850,000루피아 (68,000원)~2,200,000루피아 (176,000원)
4	뉴이스트	2018. 5. 12.	더 카사블랑카 홀 (The Kasablanka Hall)	티켓가격 : 900,000루피아 (72,000원)~2,400,000루피아 (192,000원)
5	GOT7	2018. 6. 30.	미정	-
6	여자친구	2018. 6~7월 중	미정	-



※ 이미지 출처 : 구글 이미지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기현 센터장 : +86-10-6501-9971 / gihun@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수진 주임 : +81-3-5363-4512 / hwang_sujin@kocca.kr
김성지 주임 : +81-3-5363-4510 / sj_kim@kocca.kr
 - 유럽 비즈니스센터(런던) 최윤수 센터장 : +44-20-7016-3333 / yschoi@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마케터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남미마케터(브라질 상파울루) 박희란 마케터 : +5511-2476-5120 / brazil@kocca.kr
-